



라바와 함께하는 클래식...뮤지컬 헨젤과 그레텔...

광주일보 문화예술 매거진 5월호

풍성한 '문화 상차림' 동심은 '신나는 외출'

어린이날 맞아 공연·체험·영화 다채

표문화전당

5일 어린이극 '괴물 연을 그리다'

4~5·7~8일 빅도어시네마 '예약제'

광주박물관

비대면 브레인 배틀...사전 신청해야

박물관 정원 곳곳 '보물을 찾아라'

시립교향악단

오늘~5일 애니메이션과 클래식

주안미술관

30일까지 '아이엠 그라운드' 전



서은선 작 '무지개 꿈'과 '괴물 연을 그리다' 포스터.

식' 음악회를 개최한다. 3일 오후 3시, 4-5일 오전 11시, 오후 3시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이날 공연은 애니메이션 '라바'를 보며 클래식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다. 예술감독 홍석원의 지휘와 MC용일의 사회로 진행된다. 라바의 두 주인공 '레드'와 '옐로우'가 어린이들과 함께 교감하며 벌어지는 좌충우돌 스토리를 담았으며, 브람스 '헝가리 무곡', 차이콥스키 '백조의 호수', 요한 슈트라우스 2세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 등을 들려준다.

공연 티켓은 전석 1만원(36개월 이상 관람, 어린이 및 청소년 50% 할인)이며, 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가 가능하다. 문의 062-524-5086.

(사)전통연희놀이연구소는 구연동화극 '줄줄이 펜 호랑이'를 준비했다. 6일 오후 7시 빛고을극장전수관.

이날 공연은 전래동화 '줄줄이 펜 호랑이'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전통연희놀이로 선보이는 무대로 게으르지만 꽤 많은 소년인 줄줄이에 베풀부자가 되는 과정을 익살과 해학으로 담아낸다. 공연은 '바나놀이', '통영개타령', '호랑이 춤 체험' 등으로 꾸며진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공연은 빛고을극장전수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문의 062-350-4557.

주안미술관(광주시 동구 제봉로 197)은 어린이를 위한 전시 '아트 키가' 세번째 시리즈 '아이엠 그라운드(I Am Ground)'를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 '아이들의 기분 좋은 상상 속 놀이공간' 컨셉의 키즈 전시 놀이터로 자유롭게 바깥에서 뛰어놀지 못하는 아이들이 전시장에서 상상의 나라를 펼도록 기획한 전시다.

전시에는 4명의 청년 작가가 참여했다. 김은경 작가는 무기물인 '물'이 감정을 갖게 된다면 어떤 일이 펼쳐질까 상상하는 작품을 전시하며 서은선 작가는 만화에 나오는 '호랑이'를 주제로 해학적인 작품을 제작했다. 손지원 작가는 꿈을 꾸는 듯한 '기상공간'을 통해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며 최혜원 작가는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어플리케이션의 이미지를 차용해 아이들에게 친근함을 제공한다. 문의 062-222-2083 /박성진 기자·전은재 기자 skypark@kwangju.co.kr

5월 가정의 달과 어린이 날(5일)을 맞아 공연과 체험, 영화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지역 문화기관들은 비록 코로나로 여러 제약이 있지만 마음만큼은 풍성한 '문화 상차림'을 마련했다.

먼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전당장 직무 대리 최원일)은 5일 어린이 날을 맞아 어린이극과 ACC 빅도어시네마를 연다.

어린이극장에서 펼쳐지는 '괴물 연을 그리다'는 화면해설과 자막해설, 배우들의 몸짓언어 등 수어로 제작된 무장에 공연이다. 작품은 중국의 명절인 '춘절'의 사실적 기원에 배우들의 상상력을 더해 소년과 괴물 '연'의 아름다운 사랑이야기를 그렸다. 한국과 중국의 색채가 담긴 그림자극, 사자춤, 음악이 어우러져 풍성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아울러 빅 도어시네마는 무장벽(배리어프리)영화를 상영한다. 4-5일 애니메이션 '소중한 날의 꿈'(2011), '이네스트와 셀레스틴'(2012)과 7-8일 장애를 가진 주변인을 통한 주인공의 변화를 그린 '앙리 앙리'(2014), '미라클 벨리에'(2014)를 예술극장 빅도어의 대형 화면에서 만날 수 있다. 사전예약자만 관람이 가능하다. 문의 1899-5566.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수미)도 오는 5일 온·오프라인으로 온 가족이 함께하는 '2021년 어린이날 신나는 박물관 여행'을 개최한다. 광주박물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되는 '생각나라 과자집'은 명작동화 헨젤과 그레텔을 각색한 한-중 합작 뮤지컬이다.

'문제적 어린이: 브레인 광박'은 사전 신청자에 진행되는 비대면 브레인 배틀 게임이다. 액티브 미션과 브레인 미션, 퀴즈 미션 등을 팀원들과 해결하며, 상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인중하고 간식받자'는 '어린이날 신나는 박물관 여행' 인증샷을 남기면 간식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

오프라인 프로그램 '사라진 7개의 보물을 찾아라'는 박물관 정원 곳곳에 숨겨진 보물복지를 찾으면 선물을 증정한다. 문의 062-570-7800.

광주시립교향악단은 '라바와 함께하는 키즈 클래식'



지역 문화기관들이 5일 어린이날을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사진은 ACC '빅도어시네마'〈왼쪽〉와 (사)전통연희놀이연구소 공연모습.

예능



말로 하는 SNS·귀로 듣는 웹툰·오디오 드라마...

'오디오 콘텐츠'가 뜬다

'미술품 컬렉터' 문웅 전 호서대 교수 인터뷰도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눈으로 보며 소통하던 이들이 이제는 귀로 듣는 오디오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팟캐스트를 비롯해 오디오북,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음성기반 소셜미디어 등 '오디오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는 추세다.

광주일보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 '예향'은 '듣는다는 것의 매력, 오디오 콘텐츠가 뜬다'를 5월호(통권 307호) 특집으로 준비했다. 오디오 콘텐츠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무선기기의 보급,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언택트 문화, 비디오·문자 과잉에 따른 피로현상 등의 요인이 작용하면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말로 하는 SNS '클럽하우스', 귀로 듣는 웹툰, 오디오 드라마 등 무한 진화하는 '오디오 콘텐츠'의 신세계 속으로 들어가 본다.

예향이 만난 초대석 주인공은 미술품 컬렉터 문웅 전 호서대 교수(예술학 박사)다. 문 교수는 "미술품 수집은 인생의 아름다움에 투자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그가 50여년간 모은 3000여 점의 '인영 컬렉션'은 고서화에서 현대미술에 이르기까지 방대하다. 지난해 컬렉션전 '저 붉은 색깔이 변하기 전에'에 이어 최근 '수집의 세계'를 펴낸 그를 만나 미술인생과 컬렉션 철학에 대해 들었다.

다시 돌아온 5월, 올해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41주년이 되는 해다. 기획 '문화로 되살아나는 5월 광주'를 통해 미술계와 공연계의 전시·공연을 소개하며 그날의 아픔을 돌아본다.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메이투데이', 지난해에 이어 다시 찾아온 창작 뮤지컬 '광주', 광주시립교향악단의 '회합'과 광주국악상설공연 등 5·18을 기념하는 전시와 공연을 만나본다.

'클릭, 문화현장'이 찾아간 곳은 복합문화공간 '예술공간 집'이다. 지난 2017년 전남 여고 인근에 개관한 '예술공간 집'은 여느 갤러리와는 결이 다르다. 한옥을 리모델링한 이곳은 주인장이 어린시절 10년간 실제로 거주했던 공간이라는 점에서 남다른 '서사'를 품고 있다. 개관 이후 울림 있는 기획전과 프로그램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변신한 '예술공간 집'을 소개한다.

전남 22개 시·군을 돌리보는 '짜짜짜짜'남도 한 바퀴'는 무안의 자연생태를 찾아 비대면 힐링여행을 나선다. '지구를 둘러싼 검은 비단'이라 불리는 갯벌은 수많은 생명체들의 터전이다. 그런 의미에서 무안의 청정갯벌은 우리가 지켜내야 할 소중한 자산이기도 하다. 청정갯벌에서 잡아올린 갯벌낙지와 황토굴이 키워낸 양파와 고구마, 밀리터리 테마파크와 전통생활문화 테마파크 등 이색 테마공간이 여행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문화를 품은 건축물'은 5월호 표지를 장식한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을 소개한다. 담배공장을 리모델링한 미술관은 국내 최초 '수장고형 미술관'으로, 수장고에서 소장품을 직접 관람하고 보존처리 과정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단연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외에 '우리 땅, 우리 문화'를 찾아 떠나는 여행은 남도의 자연, 천혜의 습지를 느낄 수 있는 목포로 안내하고, 전국을 돌며 활동하고 있는 지역 예술단체인 아프리카 타악그룹 '아나포', 위기를 기회삼아 날개를 펼치고 있는 KIA타이거즈와 광주FC 신예들도 만나본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대한민국 최우수 보청기 브랜드 부문 [연년 연속] 수상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2016 혁신기술상 수상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국제보청기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